

# 순천시 특정 자동차매매상 허가 논란

도심 '미관지구' 불구 허가 물의

허가 나기전 한달 간 불법영업도

자동차 관련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중심지 미관(美觀)지구'에 위치한 순천시 풍동동 A자동차 매매상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달이 넘도록 불법 영업행위를 해왔음에도 순천시가 뒤늦게 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자동차 매매사는 시로부터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 2월 중순부터 중고 차량들을 전시, 불법 영업을 해왔다. 특히 이 지역은 '중심지 미관지구'로 자동차 관련 시설 허가가 불가능한데 시당국은 지난달 14일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업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도시과는 관련 법규에 의거, 교통과에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묵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4조 1항에는 '중심지 미관지구 내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더욱이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교통과는 뒤늦게 관계공무원을 협장에 내보내는 등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민 김모(45)씨는 "이곳에 자동차 매매상사가 들어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허가를 내준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화(美化)나 경관의 보존을 위해 건축이 엄격히 제한되며, 중심지 미관지구·역사문화 미관지구·일반 미관지구로 세분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난장(亂場)과 국악의 만남

운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과거 대규모 난장이 열렸던 광양의 역사적 배경과 국악을 접목시켜 축제 형태로 재탄생시켰다.

/연합뉴스

## 여수시 '지방세 징수' 우수

전남 시·군 중 1위…총 2억3천만원 지원 받아

여수시가 최근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우수기관 1위'로 선정돼 상 사업비 9천만원을 받는다.

이는 여수시가 시민들의 납세 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선 세무부서 전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시는 특히 지난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징수부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고액체납자 관리팀을 비롯해 체납자랑 관리·부동산체납 관리팀을 별도로 편성했다. 이들은 부동산압류와 공매, 금융기관에 예금 압류 등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을 줄여 나갔다.

또 체납자랑 단속반을 주 3회 운영하고 야간에는 세무담당공무원 64명이 합동단속에 나서 매달 한차례 이상 번호판영지를 했다.

또한 속칭 '대포차'를 끝까지 주적, 인도명령이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징수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여수시는 전남도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실적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9천만원의 상사업비

를 받았다. 이는 최근 들어 하반기에도 체납액 줄이기 실적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9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올려 2억3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올해 역시 체납처분 활동과 함께 신용정보 조희 시스템을 도입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권리별 징수책임 운영, 고질체납자 명단 공개, 관리사업 제한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65세이하 '아이돌보미' 양성

여수시, 교육비 전액 지원

여수시가 오는 6일까지 양육 경험 이 있는 65세 이하 여성들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을 모집한다. 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여수 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신청은 우편접수나 방문접수,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061-690-7158~9, 팩스 690-8249).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파면 항의 시장 쫓아 다니며 시위

### 전공노 순천시지부 7명 '릴레이시위'

직무명령 불이행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순천시 전직 공무원들이 노관규 순천시장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 시위를 벌여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순천시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2명) 또는 해임(5명)이 결정된 전국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간부 7명에 대해 지난 2월 27일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을 개인별로 통보했다.

이후 이들은 이번 징계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막살한 행위이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체 릴레이 시위를 벌여 왔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는 노관규 시장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림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별장면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장에서도 이들은 노시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

지난달 28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노 시장은 "끝까지 불법으로 대응한 노조 지도부에 대해 중징계는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단체와의 적당한 타협이나 양보는 없을 것이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법과 투쟁 일련도의 시위 문화를 개선하는데 시민들도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는 노관규 시장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장애인과 벚꽃 나들이

### 광양제철소 직원단체 '미니밀천사회'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지역 장애우들을 초청해 벚꽃나들이 행사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광양제철소 미니밀 천사회의 광양지역 장애우 150여명을 제철소 내 주택단지로 초청해 '벚꽃 나들이' 행사를 마련했다. (사진)

미니밀 천사회 회원들은 이날 거동이 힘든 장애우들을 정성껏 돌보며 약 2km의 꽃길을 함께 걷고 장기자랑과 미니체육대회로 우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미니밀 천사회 이순빈 회장(52)은 "꽃이 많고 화려한 광양제철소 주택단지의 벚꽃을 장애우들에게도 감상할 기회를 주고 싶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9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미니밀 천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인근 지역 장애우들의 사회체육 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응 훈련과 재활을 돋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 여수시립도서관 이달부터

#### 다 읽은 책 택배 차불 반납

여수시립도서관이 이달부터 장애우 무료택배 도서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지역내 1~3급 지체장애인들로 원하는 책을 택배를 이용해 무료로 개정까지 배달해준다.

또 장애우가 다 읽은 책은 도서관

이 지정한 택배회사를 이용, 착불로 반납하면 된다.

책은 한번에 다섯권까지 20일간 빌려볼수 있으며 대출도서를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개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장애우들의 정보획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61)-690-7240~3.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장애인 무료로 배달해줍니다

### 장애인 무료로 배달해줍니다

#### 여수시립도서관 이달부터

#### 다 읽은 책 택배 차불 반납

여수시립도서관이 이달부터 장애우 무료택배 도서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지역내 1~3급 지체장애인들로 원하는 책을 택배를 이용해 무료로 개정까지 배달해준다.

또 장애우가 다 읽은 책은 도서관

이 지정한 택배회사를 이용, 착불로 반납하면 된다.

책은 한번에 다섯권까지 20일간 빌려볼수 있으며 대출도서를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개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장애우들의 정보획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61)-690-7240~3.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장애인 무료로 배달해줍니다

### 여수시립도서관 이달부터

#### 다 읽은 책 택배 차불 반납

여수시립도서관이 이달부터 장애우 무료택배 도서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지역내 1~3급 지체장애인들로 원하는 책을 택배를 이용해 무료로 개정까지 배달해준다.

또 장애우가 다 읽은 책은 도서관

이 지정한 택배회사를 이용, 착불로 반납하면 된다.

책은 한번에 다섯권까지 20일간 빌려볼수 있으며 대출도서를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개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장애우들의 정보획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61)-690-7240~3.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장애인 무료로 배달해줍니다

### 여수시립도서관 이달부터

#### 다 읽은 책 택배 차불 반납

여수시립도서관이 이달부터 장애우 무료택배 도서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지역내 1~3급 지체장애인들로 원하는 책을 택배를 이용해 무료로 개정까지 배달해준다.

또 장애우가 다 읽은 책은 도서관

이 지정한 택배회사를 이용, 착불로 반납하면 된다.

책은 한번에 다섯권까지 20일간 빌려볼수 있으며 대출도서를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개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장애우들의 정보획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61)-690-7240~3.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장애인 무료로 배달해줍니다

### 여수시립도서관 이달부터

#### 다 읽은 책 택배 차불 반납

여수시립도서관이 이달부터 장애우 무료택배 도서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지역내 1~3급 지체장애인들로 원하는 책을 택배를 이용해 무료로 개정까지 배달해준다.

또 장애우가 다 읽은 책은 도서관

이 지정한 택배회사를 이용, 착불로 반납하면 된다.

책은 한번에 다섯권까지 20일간 빌려볼수 있으며 대출도서를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개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장애우들의 정보획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61)-690-7240~3.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장애인 무료로 배달해줍니다

### 여수시립도서관 이달부터

#### 다 읽은 책 택배 차불 반납

여수시립도서관이 이달부터 장애우 무료택배 도서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지역내 1~3급 지체장애인들로 원하는 책을 택배를 이용해 무료로 개정까지 배달해준다.

또 장애우가 다 읽은 책은 도서관

이 지정한 택배회사를 이용, 착불로 반납하면 된다.

책은 한번에 다섯권까지 20일간 빌려볼수 있으며 대출도서를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개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장애우들의 정보획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61)-690-7240~3.

/여수=박양규기자 ykpark@